자연박물관

Natural History Museum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외국문출판사
주체105(2016)년
Foreign Languages Publishing House, DPRK
Juche 105 (2016)

자연박물관
Natural History Museum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 평양의 풍치수려한 대성산기슭에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원대한 구상과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세워진 자연박물관이 자리잡고있습니다.

연건평이 35 000여㎡인 자연박물관에는 학생들과 근로자들에게 우주와 지구의 력사, 생명의 기원, 동식물들에 대한 종합적인 지식을 보급할수 있는 여러개의 전시관들이 있습니다.

특색있게 꾸려진 전시관들에서는 강사들과 학술연구사들의 안내봉사를 받을수 있으며 홀들에 있는 전시품들을 통하여 여러가지 자연현상 및 동식물들의 특징에 대한 다방면적인 지식을 습득할수 있습니다.

또한 다매체감상홀, 학술토론회실, 면담실, 전시장들이 갖추어져있으며 참관자들의 편의를 도모해주는 청량음료, 기념품매대들이 있습니다.

자연에 대한 다방면적인 지식을 주고 기쁨과 웃음을 더해주는 자연박물관은 참관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것입니다.

The Natural History Museum is located at the foot of picturesque Mt Taesong in Pyongyang, the capital city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e museum has been built according to the grand plan of the respected Marshal Kim Jong Un and under his meticulous care.

Occupying a total floor space of over 35 000 sq metres, the museum has several exhibition houses that give schoolchildren and other working people an encyclopaedic knowledge of the history of the universe and the earth, the origin of life, animals and plants.

Visitors to the museum, accompanied by the guides and academic researchers, tour the exhibition houses, built in a distinctive way and furnished with various exhibits, and acquire many-sided knowledge on natural phenomena and features of animals and plants.

In the museum are also areas for watching animations and holding interviews, academic discussions and shows, as well as soft drink stalls and gifts counter for the convenience of the visitors.

The Natural History Museum greatly impresses visitors with its comprehensive knowledge on na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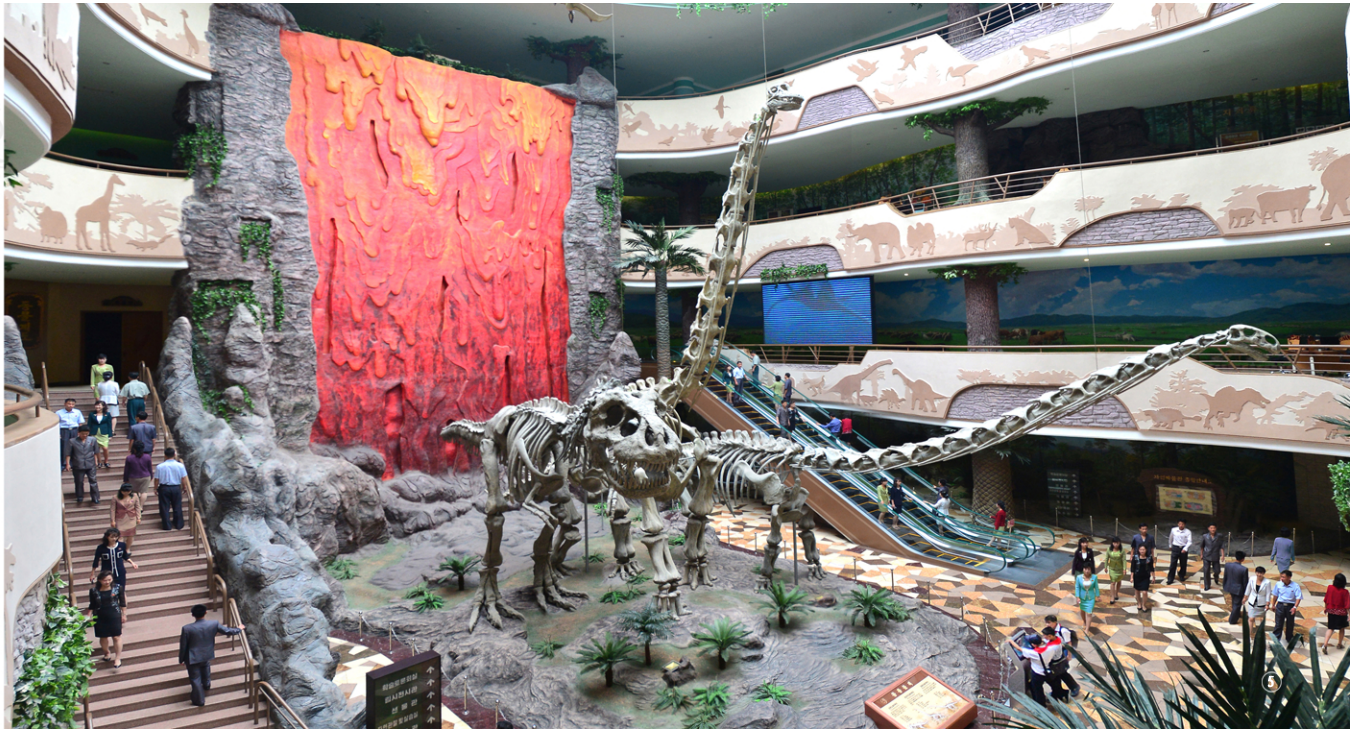
중앙홀 Central Hall

중앙홀에는 지나간 지질력사와 더불어 사람들이 환상적인 동물로만 알고있던 중생대시기의 공룡들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3마리 공룡골격들을 가운데부분에 배치하고 그 주변에 중생대의 환경과 그속에서 생활한 공룡들의 모습을 반경화, 모형들로 형상함으로써 참관자들이 마치도 공룡의 시대에 들어선것과 같은 느낌을 가질수 있게 학술구성과 전시형성을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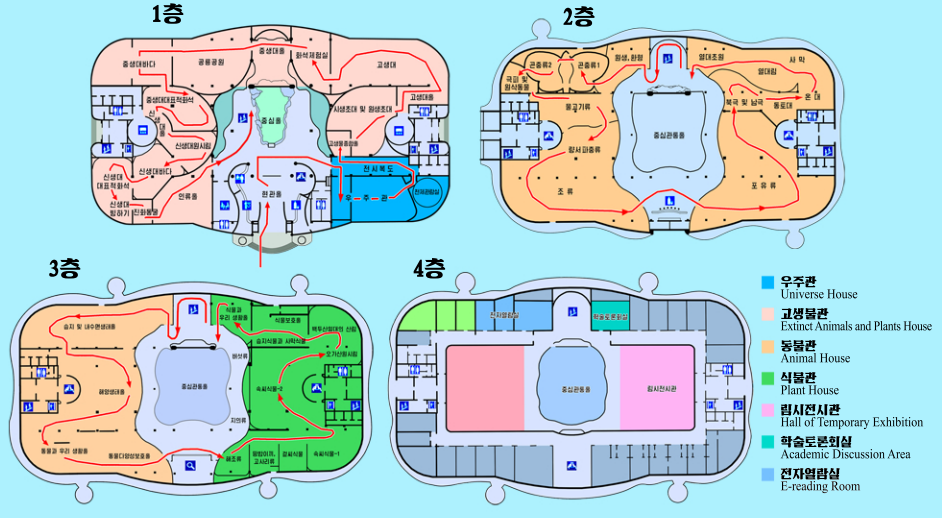
The hall displays in the centre the frameworks of three dinosaurs, most typical among those that had once lived in Mesozoic era, and around them dioramas and models of other kinds of dinosaurs in the environment suggestive of Mesozoic era. Visitors feel as if they relive the time of the dinosaurs.

중앙홀 왼쪽에 전시된 삼첩기와 유라기 공룡들
Dinosaurs in Triassic and Jurassic periods exhibited on the left

중앙홀 오른쪽에 전시된 백악기 공룡들
Dinosaurs in Cretaceous Period exhibited on the right



자연박물관 종합안내도
Layout of Natural History Museum



우주관입구
Entrance to Universe House
10. . . . . .

우주관
Universe House
11. . . . . .

천체관람실
Planetarium
11. . . . . .

우주관
Universe House

우주관에서는 우주의 진화과정에 형성된 태양계와 지구에 대한 일반지식을 생명의 기원과 결부시켜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살고있는 지구와 우주에 대한 과학적인 표상을 줍니다.

The house provides a scientific concept of the earth and universe by giving the common knowledge of the solar system and the earth created during the evolution of the universe in connection with the origin of life.

우주관

500여㎡의 전시면적을 가진 **우주관**은 《우주진화》, 《태양계》, 《천문현상》, 《천체관람실》구획들로 이루어져있으며 여기에는 《우주의 진화》, 《태양계의 형성》, 《태양이 지구에 주는 영향》, 《시간과 날자》, 《계절변화》, 《별자리찾아보기》 등이 전시되여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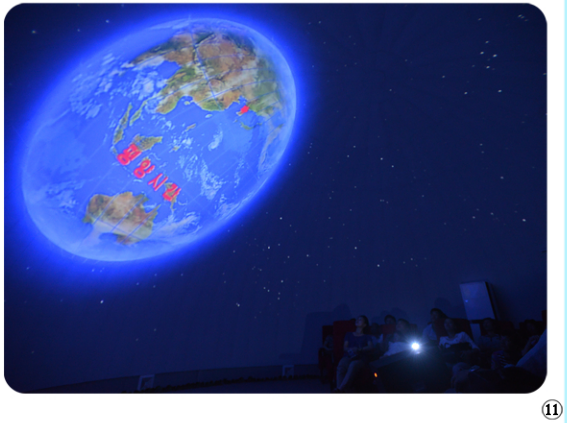
The house, with an exhibit area of over 500 sq metres, is divided into sections for the evolution of the universe, solar system, and astronomical phenomena, and planetarium. The house has various means of display designed to give a wide-ranging knowledge on the evolution of the universe, the origin of the solar system, solar influence on the earth, time and date, seasons, finding of constellations and so on.

우주관입구에서는 우주에서 차지하는 지구의 위치를 계층별로 보여주는 형광도판들을 통하여 우리가 살고있는 지구에 대한 인식을 줍니다.

The illustrations at the entrance to the house give hierarchical images of the earth's place in the universe.

30석의 좌석을 가진 천체관람실에서는 천문투영설비를 리용하여 지구의 형성과정, 태양계를 이루는 행성들의 운동, 밤하늘의 별자리 등을 보여주어 참관자들을 무한한 우주의 세계에로 이끌어가며 우주에 대한 다방면적인 지식을 줍니다.

The 30-seat planetarium with the digital projector shows the visitors the formation of the earth, the motions of the planets in the solar system, constellations and others, attracting them to the fathomless universe and giving a comprehensive knowledge of the universe.



전시북도에는 천문학과 고생물학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도판들을 량벽면에 전시하였습니다.

Illustration boards showing common knowledge in astronomy and paleontology hang on both sides of the corridor.

시생초대 및 원생초대구획
Section of Archean and Proterozoic Eons
16

고생대구획
Section of Paleozoic Era
18

중생대구획
Section of Mesozoic Era
20

신생대구획
Section of Cenozoic Era
26

고생물관

Extinct Animals and Plants House

고생물관에서는 지구환경변화와 생명의 진화발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체득할수 있도록 합니다.

The house gives an all-embracing knowledge on the environmental changes of the earth and the evolution course of life.

고생물종합홀 General Introduction Hall of Extinct Animals and Plants

고생물관

고생물종합홀에는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께 세계 여러 나라 인민들이 삼가 올린 화석들이 사진으로 전시되여있으며 여기에서는 지구가 생겨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약 46억년동안의 지질시대구분과 매 지질시대별 대표적인 생물들에 대한 인식을 가지게 됩니다.

The general introduction hall of extinct animals and plants displays photos of fossils presented to Generalissimos Kim Il Sung and Kim Jong Il and Marshal Kim Jong Un by foreigners. They help visitors acquire a wide-ranging understanding of divisions of geological times spanning about 4.6 billion years since the emergence of the earth to date and of animals and plants typical of each geological time.

시생초대 및 원생초대구획 Section of Archean and Proterozoic Eons

시생초대 및 원생초대구획에서는 시생초대로부터 원생초대에 이르기까지의 약 30억년동안 지구에서 생명이 기원되여 단세포를 거쳐 다세포생물에 이르는 과정을 생물의 진화발전과정과 해당 지질시대와의 호상관계속에서 인식할수 있습니다.

The section of Archean and Proterozoic eons that shows a period of about 3 billion years, from the origin of life on the earth to its evolution, helps the visitors get an understanding of the evolution course of the organisms from unicellular to multicellular ones in relation to the corresponding geological periods.

고생대구획 Section of Paleozoic Era

고생대구획에는 고생대홀과 화석체험실이 있습니다.

고생대는 5억 4천백만년전부터 2억 5천2백만년전까지의 지질시대를 포괄하고있습니다.

고생대는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 실루르기, 데본기, 석탄기, 페름기로 구분합니다.

The section of Paleozoic era is comprised of the halls of Paleozoic era and fossil-collecting experience a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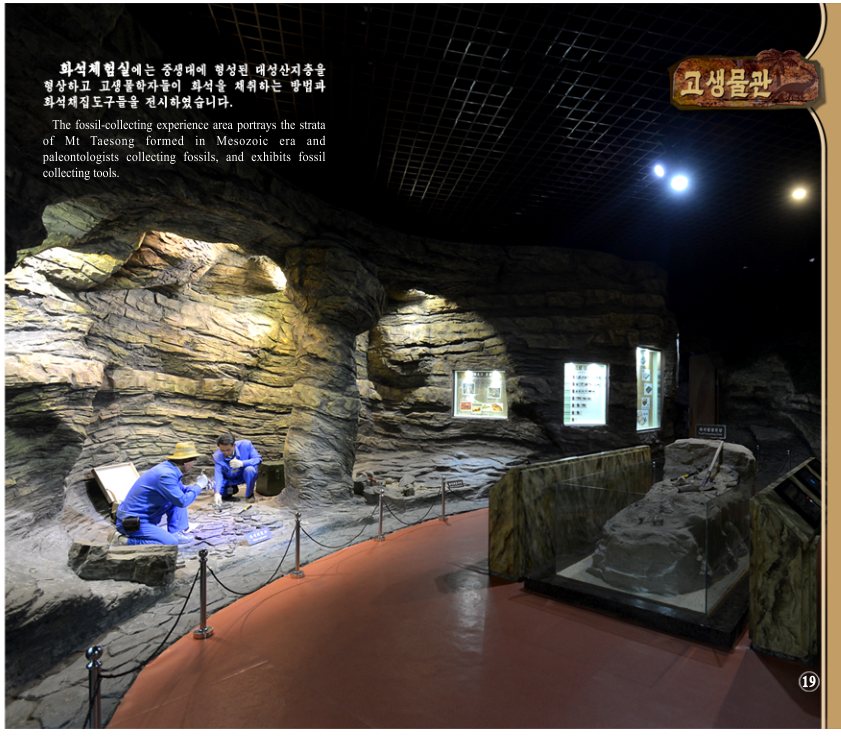
The major divisions of Paleozoic era, involving the geological time from 541 to 252 million years ago, are Cambrian, Ordovician, Silurian, Devonian, Carboniferous and Permian periods.

고생대홀에서는 고생대의 다양한 생물상과 지구상에서 물살이동식물로부터 륙지살이동식물에로의 진화과정, 생물의 대량적인 사멸사건, 석탄의 형성 등을 해당 지질시대와의 호상관계속에서 인식할수 있습니다.

The hall of Paleozoic era provides knowledge, in relation to corresponding geological periods, of the biota of Paleozoic era, the evolution of animals and plants on the earth from aquatic to terrestrial ones, mass extinction of organisms, formation of coal and so on.

화석체험실에는 중생대에 형성된 대성산지층을 형상하고 고생물학자들이 화석을 채취하는 방법과 화석채집도구들을 전시하였습니다.

The fossil-collecting experience area portrays the strata of Mt Taesong formed in Mesozoic era and paleontologists collecting fossils, and exhibits fossil collecting tools.



중생대구획 Section of Mesozoic Era

중생대구획에서는 중생대의 다양한 생물상을 보여주면서 공룡의 번성과 사멸, 조류의 출현, 초대륙의 형성과 분열, 중생대말 생물의 대량 사멸사건들을 해당 지질시대와의 호상관계속에서 인식할수 있습니다.

중생대는 지금으로부터 약 2억 5천 2백만년전부터 6천 6백만년전까지의 지질시대를 포괄하며 삼첩기와 유라기, 백악기로 구분합니다.

중생대는 지구력사에서 공룡의 시대, 겉씨식물의 시대라고도 불리우고있습니다.

중생대구획은 중생대홀, 공룡공원, 중생대바다, 중생대대표적화석홀로 구분되여있습니다.

The section of Mesozoic era exhibits a rich diversity of biota in the era, thriving and extinction of dinosaurs, appearance of birds, formation of supercontinent and split, and mass extinction events at the end of the era, and that in relation to the corresponding geological periods.

Mesozoic era that began about 252 million years ago and ended 66 million years ago is divided into Triassic, Jurassic and Cretaceous periods.

This era is known in earth's history as the time of the dinosaurs as well as gymnosperm period.

The section of Mesozoic era comprises the hall of Mesozoic era, dinosaur park, and halls of the oceans and typical fossils in Mesozoic era.

중생대홀
Hall of Mesozoic Era

공룡공원에서는 지구상에서 가장 신비스러운 존재로 알려진 공룡에 대한 폭넓고 깊이있는 지식을 줍니다.

The dinosaur park is dedicated to the dinosaurs known as the most mysterious creatures in earth's history.

고생물관

중생대구획 Section of Mesozoic Era

중생대바다홀에서는 중생대시기의 바다환경과 그속에서 살던 동물들을 환경화와 모형들로 형상하고 립체동영상자료도 방영함으로써 중생대의 바다에 대한 지식을 주고있습니다.

The hall of the Mesozoic oceans replicates the oceans and forms of life that existed during the era by means of dioramas, models and 3D animations.

중생대대표적화석홀
Hall of Typical Fossils in Mesozoic Era

신생대구획 Section of Cenozoic Era

신생대구획에서는 신생대의 다양한 생물상을 보여주는 판경화와 도판, 화석과 모형, 다매체 등을 통하여 참관자들에게 인류의 기원과 진화에 이르기까지의 내용들을 해당 지질시대와의 호상 관계속에서 인식시켜주고있습니다.

신생대는 지금으로부터 6천 6백만년전부터 현재까지의 지질시대를 포괄합니다.

신생대는 고제3기와 신제3기, 제4기로 구분합니다.

신생대시기 두렷한 기후분화로 하여 속씨식물과 포유류가 번성하였는데 이 시기를 일명 포유류의 시대, 속씨식물의 시대라고 부르고있습니다.

The section of Cenozoic era exhibits dioramas, illustrations, fossils, models, animations and other means for showing the diversity of the Cenozoic biota, bringing home to the visitors the origin and evolution of humans in relation to the corresponding geological periods.

Cenozoic era, beginning 66 million years ago and extending to the present, is generally divided into Paleogene, Neogene and Quaternary periods.

As climatic differentiations became clear in Cenozoic era, angiosperms and mammals prospered, naming the era the periods of mammals and angiosperms.

신생대홀
Hall of Cenozoic Era

신생대원시림홀에는 신생대의 수림과 그속에서 살았던 검치호와 모에리테리움을 비롯하여 우리 나라에서 화석으로 알려진 동물들을 형상하여 전시하였습니다.

The hall of primeval forests in Cenozoic era displays models of *Megantereon cf. cultridens*, moeritherium and other living creatures that inhabited the Cenozoic forests and are known as fossils in Korea.

검치호 *Megantereon cf. cultridens*

모에리테리움 Moeritherium

털서우 Wooly rhinoceros

신생대바다홀에서는 이 시기 매우 다양하고 풍부하였던 바다환경과 생물들을 바닥 LED전광판과 결부시켜 특색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The hall of the Cenozoic oceans is uniquely furnished with such display means as the large-sized LED screen on the floor to represent the diverse marine environments and life-forms that existed in the era.

신생대구획 Section of Cenozoic Era

신생대대표적화석과 빙하홀에는 화석자료에 기초하여 복원한 털코끼리 골격모형을 비롯하여 동식물화석들과 규조식물이 쌓여 형성된 규조토가 전시되여있습니다.

The hall of typical fossils in Cenozoic era and the glacial age has exhibits of a model framework of the *Mammuthus primigenius*, or wooly mammoth, restored on the basis of the collected fossils, other fossils of animals and plants, and diatomite.

고생물관

진화동굴에서는 시생초대 및 원생초대로부터 인류발생까지 지구상에 출현하였던 대표적인 동식물들을 모형으로 전시하여 생명의 진화과정을 직관적으로 보여주고있습니다.

The evolution tunnel graphically shows the evolution process of living creatures by displaying representative fauna and flora models that existed on the earth in the periods between Archean and Proterozoic eons and the days of the emergence of humans.

인류홀에서는 인류의 기원과 진화발전과정에 대하여 보여줍니다.

The hall of human evolution shows the origin and development of humans.

동물분류구획
Section of Animal Classification
34

동물생태구획
Section of Animal Ecology
42

동물과 우리 생활구획
Section of Animals and Our Life
50

동물다양성보호구획
Section of Protecting Animal Diversity
52

동물관

Animal House

동물관에서는 지구상에 있는 동물들의 종류와 생태, 분포, 보호 등에 대하여 폭넓고 깊이있게 보여줍니다.

The house gives a broad and deep knowledge of species of the animals existing on the earth, their ecology and distribution, ways of protecting them and so on.

동물분류구획 Section of Animal Classification

원생, 환형동물홀에서는 원생동물과 해면동물, 강장동물, 편형동물, 환형동물, 연체동물들의 구조와 형태, 대표종에 대한 지식을 주고있습니다.

The hall of protozoans and annelids gives knowledge of structures and forms of the protozoans, sponges, coelenterates, flat-worms, annelids and mollusks, and their representative genera.

동물분류구획에서는 진화수준에 따라 무척추동물, 척추동물로 나누어 참관자들에게 동물집단별특징과 대표종들, 진화단계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주고있습니다.

여기에는 무척추동물들을 보여주는 원생, 환형동물홀, 극피-원삭동물홀, 절족동물홀과 척추동물들을 보여주는 물고기홀, 량서파충류홀, 조류홀, 포유류홀이 있습니다.

The section of animal classification displays invertebrates and vertebrates according to their evolution levels and provides a broad knowledge about the characteristics of their groups, representative genera and their evolutionary history.

The section is comprised of the halls for such invertebrates as protozoans and annelids, echinoderms and chordates, and arthropods and the halls for such vertebrates as fishes, amphibians and reptiles, birds, and mammals.

극피-원삭동물홀에서는 가시껍질을 가진 극피동물과 원시적인 척삭을 가진 원삭동물, 반삭동물의 대표종과 구조, 형태적특징에 대하여 보여주고있습니다.

The hall of echinoderms and chordates displays the typical echinoderms, chordates and hemichordates, their structures and morphological features.

절족동물홀에는 새각류, 협각류, 다족류, 곤충류가 전시되여있습니다.

절족동물은 그 종수나 개체수에 있어서 가장 큰 동물집단으로서 지구상에 알려진 동물 총종수의 3분의 2에 달합니다.

The hall of arthropods displays branchiopods, Chelicerata, myriapods and insects.

The arthropods, the largest group in numbers of kinds and individuals, account for two thirds of the known species of animals on the earth.

물고기류홀에서는 **삭배물고기, 굳은배물고기, 특이한 물고기 등으로 나누어 보여주고있습니다.**

The hall of fishes displays fishes divided into cartilaginous ones, teleosts and special ones.

랑서파충류홀에는 **랑서류와 파충류로 나누어 그 대표종들을 전시하였습니다.**

The hall of amphibians and reptiles displays the representative species.

조류홀에는 국조전시대와 새들의 생태일면을 보여주는 박제표본들을 전시하였습니다.

The hall of birds displays national birds of several countries and stuffed birds indicative of their ecology.

동물분류구획 Section of Animal Classification

포유류홀에는 가장 원시적인 집단인 단공류로부터 가장 발전된 집단인 원숭이류에 이르기까지의 포유동물의 박제표본들을 전시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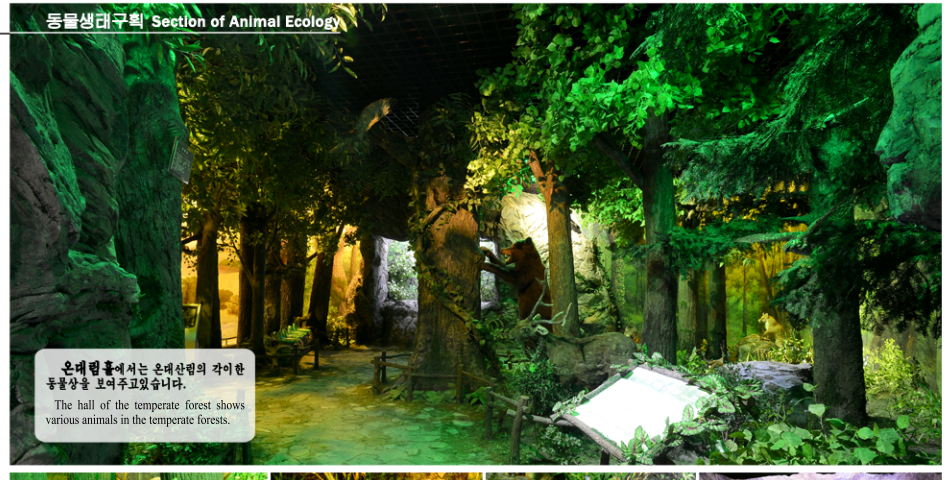
The hall of mammals has exhibits of stuffed specimens ranging from the monotremes, the most ancient group of mammals, to monkeys, the most developed group.

동물생태구획 Section of Animal Ecology

동물생태구획에서는 각이한 서식지에서 사는 동물들과 주위환경에 대하여 보여주고있습니다.
The section of animal ecology shows animals in various habitats and their ecolog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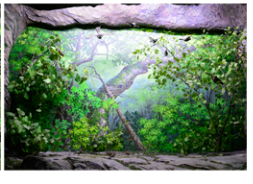
북극 및 남극홀에서는 북극과 남극에서 살고있는 동물들에 대하여 생태전경과 결부시켜 보여주고있습니다.
The hall of polar regions has dioramas of animals that inhabit the Arctic and the Antarctic regions.

동토대홀에서는 동토대에서 살고 있는 특이한 동물들에 대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The hall of the tundra displays animals indigenous to tundras.



온대림홀에서는 온대산림의 각이한 동물상을 보여주고있습니다.

The hall of the temperate forest shows various animals in the temperate forests.



사막홀에서는 사막의 자연환경과 여기에 적응된 동물들에 대하여 보여주고있습니다.

The hall of the desert displays the environmental conditions of the deserts and animals acclimatized to them.

동물생태구획 Section of Animal Ecology

열대림홀에서는 열대림에서 살고있는 다양한 동물상에 대하여 보여주고있습니다.

The hall of the tropical forest shows animal species in the region.

동물관

열대초원홀에서는 열대초원에서 살고있는 풍부한 동물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The hall of the savanna displays a wide variety of fauna in the reg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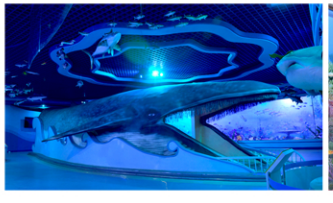
동물생태구획 Section of Animal Ecology

습지 및 내수면생태홀에서는 호수와 강하천 상류, 중류, 하류를 비롯하여 각이한 습지대에서 살고있는 동물상을 생동하게 보여주고있습니다.

The hall of wetland and freshwater ecology shows in a vivid way the animal species found in the wetlands, including lakes and rivers at their upper, middle and lower parts.

해양생태홀은 우리 나라와 세계의 주요 대양들에서 살고있는 바다동물들이 립체감이 나게 전시되여있어 마치도 바다세계에 들어온것 같은 느낌을 주고있습니다.

The hall of marine ecology displays in a three-dimensional way models of the aquatic animals living in the Korean seas and other major oceans of the world.



동물과 우리 생활구획 Section of Animals and Our Life

동물과 우리 생활구획에서는 동물이 인간생활과 어떻게 밀접히 련관되여있는가를 박제표본과 제품, 도판들을 통하여 보여주고있습니다.

The section of animals and our life displays stuffed specimens, products and illustrations explaining close relations between animals and human life.

동물다양성보호구획에서는 인간활동에 의한 동물종보호와 멸종원인을 전시품들과 반경화를 통하여 보여주고있습니다.

The section of protecting animal diversity shows through exhibits and dioramas endangered animal species and the causes as well as human activities to protect them.

세계위기동물

Endangered Animals

식물분류구획
Section of Plant Classification
56

식물생태 및 보호구획
Section of Plant Ecology and Protection
58

식물과 우리 생활구획
Section of Plants and Our Life
60

버섯과 지의류구획
Section of Mushrooms and Lichens
61

식물관

Plant House

식물관에서는 지구상에 분포된 다양한 식물집단들과 버섯, 지의류의 대표적인 종들의 형태와 구조, 분류와 분포, 생태, 식물다양성보호, 리용에 대한 지식을 폭넓고 깊이있게 주고있습니다.

The house gives a wide-ranging and profound knowledge of various plant groups, mushrooms and lichens found on the earth, including their representative species, shapes and structures, classifications and distributions, ecology, protection of plant diversity, and their uses.

조류홀에서는 물속환경에서 살면서 빛합성을 하며 살아가는 조류에 대하여 보여주고있습니다.
여기에는 바다에서 사는 해조류와 민물에서 사는 담수조류를 갈라서 전시하였습니다.

The hall of algae displays aquatic, photosynthetic organisms divided into marine and freshwater ones.

겉씨식물홀에는 우리 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에 분포되여있는 대표적인 겉씨식물들과 그것들의 생식기관을 실물과 사진, 모형으로 전시하였습니다.

The hall of gymnosperms displays real objects, pictures and models of the typical species among gymnosperms found in Korea and other countries and their reproductive organs.

땅밥이끼, 고사리류홀에는 우리 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들에 분포되여있는 땅밥이끼류, 고사리류의 대표종들을 진화순서에 따라 모형과 사진으로 전시하였습니다.

The hall of liverworts, moss and brackens displays models and pictures of the typical species distributed in Korea and other countries according to their evolution orders.

속씨식물홀에는 김일성화와 김정일화, 조선의 국화 목란을 비롯한 주요속씨식물들의 대표종들에 대하여 보여주는 실물과 모형, 사진 도판자료들이 전시되여있습니다.
또한 속씨식물이 식물계에서 꽃을 가지고 있는 가장 고등한 집단이라는 의미에서 홀중심에 아름다운 꽃밭을 형성하였습니다.

The hall of angiosperms has on display real and model objects and photo illustrations of the representative species of angiosperms, including Kimilsungia, Kimjongilia, and magnolia, national flower of Korea.
In the middle of the hall is a beautiful flower bed that means the angiosperms belong to the highest group of the plant kingdom as they are flowering plants.

식물보호, 습지와 사막식물홀에서는 식물보호와 관련한 지식들과 습지와 사막에서 사는 대표적인 식물들에 대하여 보여주고있습니다.
The hall of plant protection, and wetland and desert plants gives knowledge of plant protection while displaying representative plants in wet and desert regions.

식물과 우리 생활구획 Section of Plants and Our Life

식물과 우리 생활홀에는 우리 생활에서 널리 리용되고있는 목재 및 섬유식물, 기름식물과 약용식물, 향료식물을 비롯한 여러 분야로 구분하여 대표종들과 그 제품들을 전시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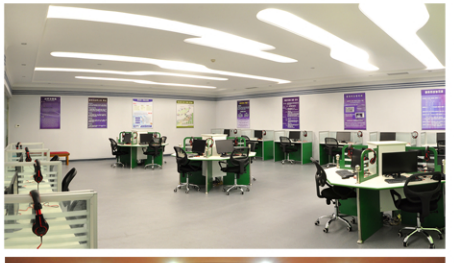
The hall of plants and our life displays representative species for timber, fibre, oil, medicine, aromatic essences and other purposes, and their products.

버섯과 지의류구획 Section of Mushrooms and Lichens

버섯과 지의류홀에는 우리 나라에서 자라는 버섯과 지의류가운데서 대표적이면서도 특이한 대상물을 전시하였습니다.

The hall of mushrooms and lichens displays Korea's indigenous mushrooms and representative and rare lichen species.

전자열람실 E-reading room



학술토론회실 Academic discussion area

다매체열람홀 E-reading area

자연관찰 및 실습실 Nature study laboratory

다매체감상홀 Animation watching area

면담실 Conference room

기념품매대 Gifts counter

청량음료 Soft drink stall

편집 : 김은정
글 : 리완익, 김진우, 리영림, 정영태, 최국철,
사진 : 변찬우, 공유일, 김주혁, 최원철, 김윤혁
번역 : 홍영희, 한정철
교정 : 오순이, 함성진, 김영대

자 연 박 물 관

낸곳 : 외국문출판사
인쇄 : 외국문출판사 인쇄공장
발행 : 주체105(2016)년 10월

ㄱ-6832029

Edited by Kim Un Jong
Written by Ri Wan Ik, Kim Jin U, Ri Yong Rim, Jong Yong Thae and Choe Kuk Chol
Photographed by Pyon Chan U, Kong Yu Il, Kim Ju Hyok, Choe Won Chol and Kim Yun Hyok
Translated by Hong Yong Hui and Han Jong Chol
Proofread by O Sun I, Ham Song Jin and Kim Yong Dae

Natural History Museum

Published by the Foreign Languages Publishing House
Printed at the printing plant of the Foreign Languages Publishing House
Issued in October Juche 105 (2016)